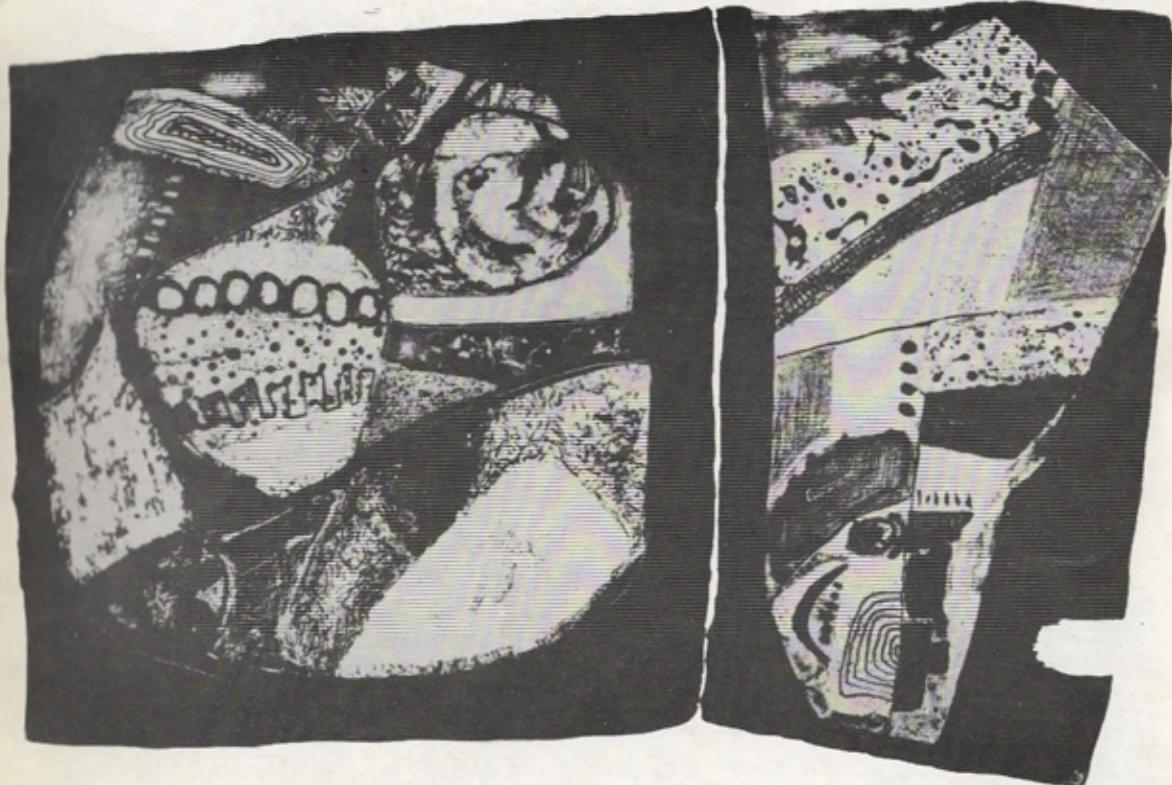


숭대극회 제14회 정기공연

인터뷰 (INTERVIEW)



장·크로드·반·이태리 作
신정옥 譯
김득남 演出

1976. 6. 1 (火), 3 (木), 4 (金) PM 7 : 00

숭전대학교 대학극장

격 려 사



총장 이 한 빈

날로 발전하는 중대극회가 현대 미국 실험 연극의 기
수 반·이탈리의 작품을 공연하는意義는 크다고 본다.

현대 미국 문명의 문제점들을 테마로 잡고 있는 이탈리
의 연극세계는 혼탁한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하는가 하
는 질문을 던지고 있다.

이런 값진 연극작품을 통해서 우리 중전의 젊은이들이 인간성에 대한 통찰과
사회에 대한 관찰과 또한 삶에 대한 목적에 대하여 넓은 체험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전의 밭에서 갈고 힘쓰는 여러분들의 미래 사회의 주역들이다. 그 주
인공들이 연극속에서 인간성의 진리를 발견하고 人生의 참 뜻을 깨닫는 일은 중
요한 일이된다.

이번 공연이 좋은 성과를 거두어 젊은 중전인들에게 보람이 되고, 중전의 빛
나는 역사에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

배 움



지도교수 이 태 주

대학은 연구하며 실험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좋다.
연극 수련을 통하여 창조정신이 함양되고, 人格의 向上이
도모될 수 있다는 것도 대학극이 지니고 있는 고귀한 점
일 것이다.

방과 후의 여가를 틈타 성실하게 연습에 임한 剧會員들
의 노고를 고맙게 여기며, 특히 번역작품의 공연을 허락
해 주신 선정우 교수님께 깊은 사의를 드린다. 아울러 성강한 김 득남君의 혁
신적 노고를 치하한다.



연 출 말

金 得 男

나는 스스로 만들면서 사는가
아니면 끌려가는가?

오늘날 存在方式은 神에게보다도 직업에서 우선한
다.

이런데에서 우리는 어디에 있는가
聖者는 못되더라도 俗되지는 않았어야했다. 혼한
方式에서 삶의 價值를 가질 수 없다. 作品에 입하
면서 자신에 對한 갈등을 俗化시키지 않으려는 되새김에 용기를 갖는다.
지금 여기 모두에게 고개숙인다.

기획의 글

기계과 3年 김 기 열



진한 연극을 하고 싶어 안달했던 설레임이 이제
는 두려움으로 떠나는 것입니다.

어차피 우리는 오늘을 담습하면서 지난 수도 있
고, 순간을 완벽하게 사를 수도 있겠다고 어림해봅
니다.

흔히 미래를 수놓듯 꿈꾸면서도 막상 당도하면
그런 거 아니겠냐고 허망해 합이 바로 그런거다라
고 충고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일련의 時事的 반복과정에서 우리는 무엇을 물어야 합니까.
충격적인 작가〈이탈리〉는 剧場에서 모든 이들이 만나고 생생히 느끼기를 鶴
首告待하고 있습니다.
도와주신 분들에게 부끄러운 인사를 올립니다.

CAST



이 한 희



서 동 철



임 순 옥



한 철

제 1 면접자 : 이 한 희(영 2)
 제 2 면접자 : 서 동 철(심유 2)
 제 3 면접자 : 임 순 옥(사학 2)
 제 4 면접자 : 김 영 덕(문리 1)
 제 1 구직자 : 한 철(화공 2)
 제 2 구직자 : 이 경 자(공 1)
 제 3 구직자 : 조 영 화(사학 2)
 제 4 구직자 : 황 현 주(사사 2)



김 영 덕



이 경 자



조 영 화



황 현 주

STAFF



기획 : 김기열 (기계 3)



연출 : 김득남 (동문)



무감 : 전경호 (전산 2)



조연출 : 이승원 (사학 2)



음향 : 이용식 (전자 3)



안무 : 곽희숙 (사학 2)



조명 : 백정식 (사사 2)



김영주 (철 2)



장치 : 조정환 (공 1)



의상 : 오명자 (영 2)



진행 : 이영표 (전자 4)



이승원



곽희숙



백정식



김영주



오명자

공연작품 연구

公演을 위해 몇 가지 개념적인 이론을 빌어왔다. 圖式的인 奉強附會가 되는 것을 우려했으나 公演은 하나의 창조이지 논술의 종합화가 아닌 것만은 확실하다고 생각되어 이론은 다만 도약대와 같은 축매체의 구실로 삼았다. 공연 그 자체가 연극의 목표라고 믿었던 때문이다.

우선 台本은 意味受與된 개념으로 파악하여 文学的 言語를 연극 공연의 기초적 기호로 인정하고 연기자가 意味賦與하는 연기술의 창조 과정을 연극 언어로서 바탕을 두었다. 台本解釋에서 추출된 Tone은 Farce의 속성이었고 外觀的으로는 Epic Drama의 技法인 것처럼 작작할 수 있는 獨白(Monolog)과 해설調(Narrative)가 뛰어지면서 작품의 發想法과는 次元을 달리하므로 疏隔效果(Verfremdungseffekt)는 하등 개입되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다.

(B. Brecht)는 관객에게 感動이 아니라 認識을 종용했지만, 〈이탈리〉는 관객과 배우가 생생하게 존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연극의 기능과 太古의 종교기능을 대용시키므로써 오히려 〈Katharsis〉나 〈Ekstasis〉가 劇의 중요한 기능으로 되고 있다. 〈이탈리〉는 言語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관객과 극적 행동사이에 일어나는儀式的 일체감이 연극의 독자적 기능이라고 주장한다. (Brecht)는 교훈적이며 도그마적인 劇作方式을 제택하였지만 〈이탈리〉는 집단창조로서 작품을 구성하였다. 뿐만 아니라 “극작가가 하는 일이란 劇을 창작한다는 것 보다는 오히려 배우가 관객과 일체화할 수 있는儀式을構成해 낸다고 하는 편이 더 났다.”고 한다.

그러나 Farce는 文學的 측면에서 본觀點의 결파이지全部는 아니다. 공연상에서 發見되어진 것은 뜻밖에 Retual이었다. 관객과 배우 사이의相互作用이 그것이다. 거기에는 현대인의 사고과정이 반영되어 있다.

이미 現代人은 자신의 實在를 自然에서 찾기보다는 文明에서 再生해 보려고 몸부림치지만 그것은 センチ멘탈리즘으로 전락하기 일쑤다. 메카니즘에 現存하는 현대인은 이상불 녹슬은 불안속에서 서성이고 있다. 그렇다고 자연에 彙依하는 태도는 자칫 현실도피나 시대착오와 함께 センチ멘탈리즘의 자가당착에 빠질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탈리〉는 연극 공연(Performance) 그 자체로서 하나의 부딪치는 체험을 감행한다. 〈Grotowsky〉와 마찬가지로 〈이탈리〉는 연극의 기능을 중요시하였고 연극의 핵심이 “만남”에 있다고 하는 점은 그들의 연극에 관한 근원적 관심이 일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의 물음은 우선, 연극은 무엇인가, 눈요기나 구경거리로부터 연극이 구분될 수 있고, 타 예술 질서의 구성물에서 명확히 구별되는 점이 무엇인가, 즉 “연극의 독자성이란 무엇인가”라는 것이다. 그들은 순수 연극 예술의 기점을 技術과 機能에서 잡았다. 그러나 기술은 단지 지역적인 기교의 顯示에 自足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이 이미 形而上學을 배태하고 있다고 믿는다.

연극의 기본적 기술의 형식은 새로운 배우술의 개발이다. 〈이탈리〉는 〈인터뷰〉에서 “즉흥 연기”(improvisation)와 “變移”(transformation)를 대폭적으로 도입하였다. 이것은 관객에게 하나의 충격적인 체험에 맞부딪치게 한다.

이미 〈Artaud〉는 文明의 거짓된 가면이며 그 캡메기를 벗겨내어 그 以前의 精神的 純粹 狀態를 연극은 전혹하게 경험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劇場은 구경하는 곳이 아닌 충격적인 체험을 겪는 곳이며 관객과 배우가 일체화하

는 곳이다.

〈Grotowsky〉는 그의 〈실험연구실〉의 둘째 번 방향으로 꿈고 있는 바를 이렇게 진술한다. “公演은 배우와 관객의 인간적 관계에 대한 세밀한 탐구이다.”

〈아르또〉가 非言語的 연극(monverbal théâtre)을 주장한 근원은 실로 人生의 문제 이기도 하다. 그는 인간의 存在를 부서지기 쉽고 혼란이 많은 위험한 관계에 있는 것이라고 파악하고 이러한 實在를 파악하려면 言語組織으로서는 파헤치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극은 言語에 의해서보다는 空間에 의한 詩의 계능을 부여해야한다고 말하면서 人間의 形而上學의 質問을 開陳한다. “연극에 있어서 문제는 말과 몸짓과 表現의 形而上學을創造하는 것이며 그것에 의하여 心理的 人間의 利害關係에서의 束縛狀態로부터 脱皮하는 것이다. …그러나 舞台上에 狹窄적으로 形而上學의 諸觀念을 導入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觀念의 주위에 여러 종류의 誘惑과 呼訴의 空氣를 만들어 내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관념의 誘惑을 方向지우는 方法에 대한 最初의 概念을 부여하는 것은 유모어가 지닌 無秩序와 詩가 지닌 상징성과 이미지이다.”

人生이 위험한 관계라는 것은 有限者의 존재방식이다. 그러나 난파하면서 초월이 가능할 수는 없는가.

殘酷 그 自體이다.

관객에게 충격적인 劇的活動으로써 무아경에 没入하도록 끌어드리고 거기에 苛酷性을 假定이나 幻覺의 次元에서가 아니라 真實로 内的인 충동의 범람으로 스스로 流露되어 나와야 한다.

〈아르또〉에 있어서 存在者の 存在方式은 真혹 그것이었고, 그것은 연극의 칠나적인 公演—연극의 真正性(transitoriness)을 이겨내는 強點이 되는 동시에 人生의 原型을 명료히 보이게 한다.

〈이탈리〉는 현대인의 존재방식을 냉엄한 매스·소사이어티의 非人間化된 사무체계에서 보았고 각박한 현실로서의 초월을 연극의 기능에서 시도한다. 이미 현대인의 자연[母胎]은 메카니즘이 된지 오래다. 그러나 그것에 구속되어 있는 日常의 상태를 存在者라 할 수 없다. 그건 노예에 지나지 않는다. 〈이탈리〉는 현대인의 源初의 存在方式으로서 職業에의 通過祭儀의儀式을 관객과 더불어 반복하고 일체감을 둘우는 것으로 實存을 확인하는데, 존재방식을 구성하는 일상적 생활과 메카니즘은 전체로서의 존재자를 구축하는 것이 되어야 하므로 연극에 있어서 배우는 전체로서의 一人役을 초월하여 메카니즘의 擬人化를 무대에서 表出한다. 그러므로 연극技法은 improvisation이나 transformation이 가능해진다.

또한 〈그로토우스키〉의 연극에 있어서의 ‘가난함’을 받아들일 수 있다.

이것은 〈M. Heidegger〉가 “초월이란 ‘전체로서의 存在者를 넘어서는 것’”이지만 이 초월이란 것이 現存在자체의 근본적인 존재방식이다. 이것이 가능한 것으로서 근원적인 無가 등장한다. 存在자체가 본질적으로 無에 속해 있고 형이상학이란 전체로서의 存在者를 넘어서 물는 것이라”라는 진술과 對應된다.

그러므로 〈이탈리〉가 작품 소재로서의 原觀念인 현실은 단순한 비유에 지나지 않는다. 그에게는 일 개인의 사랑이나 피치못할 사건 따위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인간의 實存의 본질, 형이상학에의 관심이 그것이다. 그에게 있어 현실 비판은 단지 연극으로 관객을 유도해내는 연극상 기법의 한 級에 지나지 않는다. 극적 행동과 관객과의 면밀한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연극 안으로 일체화하도록 배려된 미끼인 것이다. 그는 문명비판에서 어폐한 도식적인 사상의 명제를 전제하거나 주장하려고 하지 않는다. 결국 최종목표는 메세지 발표가 아니라 연극에서 초월을 약속하는 것이다. 그것은 上演에서만 實際的으로 가능한 것이다.

公演年譜



回	年 譜	作 品 名	演 出
1	1968년 10 : 28	"Our Town" by Thornton Wilder	이 대 주
2	1969년 10 : 10	"의자들" 이오네스코 作	이 대 주
3	1969년 10 : 28, 29	"The Miracle Worker" by William Gibson	고봉인
4	1970년 5 : 15	"聖者의 삶물" by John Millington Synge	한영재
5	1970년 10 : 28, 29	"勝負의終末" 사무엘·베케트 作	김양기
回 演 劇 祭	1971년 5 : 26, 27. 28, 31 6 : 1, 2	The Rising of the Moon by Lady Gregory	정종화
		전년복·삼화 *	주정서
		윤조명 作	
		달배해독에對해서 *	한영재
		안톤 채홉 作	
		황금단지(로마극) *	유근배
		푸라우터스 作	
		고도를 기다리며 *	차현재
		사무엘·베케트 作	
7	1971년 11 : 4, 5	저격병의 그림자 산·오케이시 作	차현재
8	1972년 5 : 25, 26, 27	생일파티 *	한영재
		H. 펍터 作	
9	1973년 5 : 21, 22, 23	미시시피씨의 결혼 F. 워렌마트 作	고봉인
10	1973년 10 : 25, 26, 27	방 H. 펍터 作 기도(소극장) F. 아라발 作	차현재
11	1974년 5 : 27, 28, 30	정의의 사람들(전 5막) A. 까류 作	정종화
12	1975년 3 : 10, 11, 12 1975년 6 : 9, 10, 12, 13	악마와 톰 W. Arving 作 (신입생환영) 싸움터의 신채 도스또에프스키라는 이름의 거북이	김홍수
13	1975년 10 : 29, 30, 31	비더만과 방화법 Max. Frish	안홍순
	1976년 3 : 17, 18	보석과 여인 이강백 作 (신입생환영)	김득남